

종합

新年辭

다시 새해가 밝았다. 힘들고 고단했던 지난해의 어둠을 뚫고 경인년 첫 태양이 솟아올랐다. 그러나 올해 전망도 밝지 못하다. 경제위기의 긴 터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는 하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는 아직도 바닥권이다. 땀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실업률은 환란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청년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실종되면서 지방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경쟁력 제고를 내세우며 수도권권의 각종 규제가 해제되면서 수도권 집중이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투자여건이 열악한 광주·전남은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렵게 됐다. 여기에 '5+2 광역경제권' 권역 재조정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서 호남

소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남권에는 대경권과 동남권 등 2개 권역을 배정한 반면 호남권은 광주·전남·전북을 한 권역으로 배정함으로써 영호남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여전하다. 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 극한 대립을 계속해 온 국회는 중재자가 아니라 갈등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다. 관용과 상생의 철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

현실이 암울하더라도 새해 첫날만큼은 국민 저마다 새로운 희망과 다짐을 가슴속에 품어야 한다. 두려움을 떨고 비전을 가슴에 새기자. 광주·전남지역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는 토대를 닦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한다.

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국제 경기대회 개최 노하우를 축적, 향후 또 다른 메이저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볼과 2년 앞으로 다가온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계 스포츠 3대

올해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광주민주화운동이 30주년을 맞는다.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재정립해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녹색 성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다행히 광주·전남 지역은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녹색 성장에 필요한 국내 최고 수준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산업화에 뒤졌던 우리 지역이 녹색 산업만큼은 앞서갈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광주일보는 새해를 맞아 지역의 정당한 목소리를 높이고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설 것이다. 나후된 광주·전남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데 소홀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서로 돕고 나누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개인 행복을 키워야 한다. 지역의 구성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한해를 만들자. 더 이상 머뭇거리 시간 없다. 신발끈을 고쳐매고 다시 뛰자. 고비 때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호남인의 지력을 발휘하자. 우리는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희망을 갖고 다시 뛰자

정부·여당은 주요 정책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화합과 통합이 실종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단기간의 목표 달성에 매달려 있는 형국이다. 실적과 일등지상주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 희망과 다짐을 이끌어내는 것은 정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중의 하나다.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접고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

지난해 호남고속철도(KTX) 광주~오송 구간 공사가 착공됐다.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울~광주까지 1시간 41분이면 주파가 가능해져 광주를 중심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된다. 2014년 완공 예정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광주~목포 구간도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역량을 모아 야 한다.

오는 2015년 개최되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

이벤트인 F1 자동차 경주대회 역시 지역민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기회다. 호남의 젓줄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는 6월에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수많은 후보 가운데 누가 진정한 지역발전의 적임자인지 가려내는 유권자들의 지혜가 요구된다.

“나누고 베푸는 사회 만듭시다”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



신감입니다. 2010년 우리가 갈 길은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와 정부는 '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면 영원히 변영할 수 있다'는 뜻의 '일로영일'의 자세로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초석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길목에서 우리 서로 배려하고, 우리 서로 나누고, 우리 서로 베풀어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0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해 위기 속에서 미래로 뻗어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밝음을 찾아냈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자 주최국이 되었고, 숙원이던 원자력 발전소 수출의 길을 엮어 열었습니다. 또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를 받은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우리가 얻은 것은 자

시장·지사 新年辭

문화산업 인프라 대폭 확충

박 광 태 광주시장



광주시 전 공직자는 올해를 광주 발전을 위한 도약의 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올해는 R&D특구 지정에 계기로 지역 주력산업과 전략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의 확고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와 함께 광주발전에 양대축인 문화수도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산업 인

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한편,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민생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녹색 성장의 적극적인 추진과 도시 숲 확대 조성 등을 통해 '1등 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F1 대회 성공 개최 전력 질주

박 준 영 전남지사



저는 올해 도정과제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녹색산업 육성, F1 대회의 성공 개최에 두고자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큰 원인인 농어촌의 주거·교육·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를 강화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올 10월에 열리는 F1 코리아 그랑프리 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도 잘 준비해 가겠습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 관광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친환경 먹거리 산업을 비롯해 생물관업과 신소재, 우주항공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며 수질개선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21세기 영산강 르네상스를 열어 가겠습니다.

1면 '여론조사'서 계속

기초단체장 후보 지지도는 광주 남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현직 단체장들이 큰 차이로 앞섰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민주당 후보 경선 시기를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에 실시하고, 경선 방법은 시민여론이 반영되는 '시민참

여 경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지역민들은 64.9%가 민주당을 지지해 여전히 '민주당 텃밭'임을 확인했으며, 이어 민노당(6.3%), 한나라당(4.2%), 국민참여당(1.4%) 순으로 지지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서는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훨씬 많았다.

한나라, 예산안 단독처리

F1경주장 건설비 등 지역예산 대폭 삭감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 소설-정보고 '시작점, 0' (대전시 서구 월평2동)
- 시-이슬 '오르골'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동)
- 동화-이영아 '보리와 밀'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한나라당이 구할 31일 2010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습적으로 단독 소집, 총지출(세출예산+기금) 기준 새해 예산안을 정부 원안(291조7천804억원) 대비 1조355억원 증준한 292조8천159억원으로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의 4대강 사업 예산 가운데 4천250억원을 삭감했다. 세출예산은 당초안 202조8천196억원에서 2조5천116억원 증준된 205조3천312억원으로, 기금은 당초안 88조9천608억원에서 1조4천761억원 증감된 87조4천84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 기준 전체 증액 규모는 4조2천397억원, 감액은 3조2천43억원

이다. 감액 내역별로는 4대강 사업에서 4천250억원 삭감됐다. 이 와중에 상임위에 반영된 광주·전남지역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예초 상임위에서 2천300억원 증액(총 4천800억원)한 호남고속철도 건설비가 600억원 증액(총 3천100억원)에 그쳤으며 역시 상임위에서 반영된 F1대회 개최 지원비 945억원(경주장 880억원, 진입도로 65억원) 중 550억원(경주장 528억원, 진입도로 22억원)만 반영됐다. 또 상임위에서 30억원 반영된 2015년 하

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비가 정부안인 10억원만 유지됐으며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건설비도 상임위 증액 800억원에서 500억원 을 삭감, 300억원만 증액(총 2천억원)하는 데 그쳤다.이와 함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비 상임위 증액 200억원이 제외되고 정부안인 200억원만 반영됐으며 상임위에서 신규로 올린 CT연구원 설립비용 200억원과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이설사업비 250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상임위에서도 만들지 못한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조사비 10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OLED 조명사업화 기술개발비 상임위 증액 200억원(총 700억원)과 산업용레이저핵심부품 및 모듈 국산화 상임위 증액 100억원(총 200억원) 등을 각각 지켜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비지원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까지

웹디자인, 전산회계, 국비지원 200, 중영 IT 직업전문학교

김재규경실학원의 합격프로젝트
소식, 김재규경실학원의 학습, 김재규경실학원의 합격프로젝트

361-8110

손해사정사, 농산물품질관리사, 펀드투자상담사

361-8110

랜드3 공인중개사학원
2010년도 100% 합격보장!!
국비환급 100%

529-8838